

33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 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
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
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스스 잠**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
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A]

[B]

* 내: 동안.
* 울려: 힘을 실어 줌.

1.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한다.
- ③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한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 ⑤ 도치의 구문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 ② [A]와 [B] 모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 ③ [A]와 [B] 모두 상승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전환한다.
- ④ [A]에서는 타인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환기되고, [B]에서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B]에서는 현실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흰 바람벽'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외풍을 막는 허술한 벽으로서의 초라한 이미지를 보이기도 하고, 쓸쓸함을 자아내는가 하면, 고결함을 상징하는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를 지니기도 한다. 또한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한계 상황이나, 상념의 투사가 가능한 스크린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정서와 처지를 드러내며 삶과 가치관을 집약한다.

- ① '쓸쓸한 것', '외로운 생각'과 같은 구절을 통해 '흰 바람벽'을 마주하고 있는 화자의 고독이 직접 노출되고 있군.
- ② '흰 바람벽'이 자아내는 누추한 느낌은 '십오촉 전등'이나 '낡은 무명셔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심화되고 있군.
- ③ '흰 바람벽'은 '좁다란 방'과 의미적 대립을 이루어 화자가 봉착한 삶의 한계를 상징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지치운 불빛'과 '어두운 그림자'로 비유되고 있군.
- ④ '흰 바람벽'의 백색이 지닌 깨끗한 이미지는 자신을 '높'게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세계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가난하'지만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흰 바람벽'은 화자의 상념이 투사되는 공간으로, 화자는 '초생달', '프랑스스 잠' 등 열거한 자연물과 인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자의 아우인 명현왕이 장풍운에게 자신의 딸과의 혼인을 청하지만, 장풍운은 이 부인과 이미 결혼하였기에 이를 거절한다. 천자의 권유로 마지못해 명현왕의 딸 유씨와 혼인한 장풍운은 토번이 침략하자 출정을 위해 경성을 떠난다.

유씨가 좌승상 장풍운이 대원수가 되어 출정한 틈을 타 이 부인을 모해하려 하여 한 계교를 생각해 내고 시비 난향을 불러 조용히 물었다.

“너는 나의 수족과 같으니, 나의 계교를 말아서 해내려느냐?”

“소비가 어찌 부인의 명을 불속인들 피하리까?”

유씨가 매우 기뻐하며 물었다.

“바깥문 출입 단속을 누가 책임지고 맡아 하느냐?”

“수문장은 강공철인데, 운향의 지아비이나이다.”

유씨가 계교를 이르고 당부했다.

“이리이리하되 삼가 누설치 말라!”

난향이 웃고 이날부터 금은을 나누어 주며 운향과 더불어 사귀어 심히 은근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두 사람의 정이 동기간 같았고, 행동거지와 목소리까지 서로 방불하여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유씨가 기뻐하여 계교 행하기를 재촉하니, 난향이 응낙하고 운향의 침소에 가서 담소하다가 물었다.

“요사이 강 무사는 어디 갔는가?”

“응당 해야 할 일이 많기로 오지 못하더니, 오늘은 마침 틈을 내어 올 것이네.”

난향이 이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만 하다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유씨에게 알렸다. 유씨가 난향에게 다시금 당부하여 ‘이리이리하라’하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이 부인에게 전갈했다.

“승상이 출정하신 후 궁중이 쓸쓸하고 고요하니, 시비 운향을 보내 주시면 아름다운 말씀도 듣고 노닐며 경치를 구경하고자 하나이다.”

이 부인은 정숙하고 기품 있는 여자인지라 유씨의 간계를 모르고 즉시 운향을 보내 주었다. 유씨는 흔쾌히 정성껏 운향을 대접하고 머무르게 하고는 돌려보내지 아니하니, 운향은 공철이 온다고 했으므로 민망했다. 유씨는 짐짓 운향을 아니 보내고 난향에게 눈짓을 하니, 난향이 즉시 운향 침소에 가서 살림 도구 및 이부자리와 베개 등을 다 옮기고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공철이 오는데, 난향이 운향인 체하고 더디 음을 원망하며 물었다.

“위왕 어르신께서 몸이 불편하시므로 부인과 두 남자가 다 내당에 머무시나이다. 그래서 정당이 비었는지라 나는 정당에 거처하겠으니, 당신도 나를 따라 정당에 가서 머무어 어찌하겠소?”

공철이 응낙하지 않고 도리어 물었다.

“비록 그러하나, 어찌 내당에 들어간단 말시오?”

“밤이 깊고 사람이 없으니 의심 마소서.”

공철의 소매를 이끌어 바로 이 부인 침소에 들어갔다. 이때 밤이 깊었으니, 시비가 다 자고 ㉠ 정당이 고요했다. 공철이 의심하지 않고 난향의 음성이 운향과 서로 비슷하므로 속은 바가 되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니, 어찌 비참하고 끔찍하지 아니하라.

난향이 공철을 인도하여 안방에 딸린 작은 방에 앉히고 말했다.

“여기 누워 있으면 내 불을 켜오리다.”

난향이 이러하고는 곧장 유씨 부인 침소로 돌아와 운향을 위로하며 말했다.

“부인을 모시고 평안히 지냈는가?”

유씨가 이어서 말했다.

“밤이 깊고 이 부인께서 외로이 계시니, 내 몸소 가서 위로하리라.”

그러고는 등축을 밝히고 정당에 이르렀다. 공철이 불빛을 보고 놀라 몸을 피하여 따로 결붙은 방에 숨었다. 유씨가 방문을 열고 침실에 두른 휘장을 걷어 올리며 말했다.

“부인은 잠을 들어 계시나이까?”

그러하며 유씨가 협방 문을 밀치니, 공철이 놀라 내닫다가 유씨와 마주쳤으나 밀치고 달아났다. 이에 유씨가 거짓으로 얼굴 빛을 달리하며 물러섰다. 이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결에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찌 이리 떠들썩한가?”

유씨가 버럭 성을 내며 꾸짖었다.

“이 음탕하고 방탕한 계집아! 너는 좌승상의 정실부인이요, 직첩이 정렬에 있거늘, 어찌 이런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냐?”

시비를 시켜 서둘러 이 부인을 결박 짓게 했다.

이 부인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이 지경에 처하니 놀라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나, 일이 되어 가는 형세가 어찌 된 것인지 알지 못하여 심신을 가다듬지 못했다.

이즈음에 공철이 도망하여 중문으로 나왔다. 그러나 문을 지키는 군사가 이왕 난향과 약속이 있었는지라 칼을 들어서 공철을 베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천자의 명령으로 이 부인은 감옥에 갇히고 장풍운은 금산사 부처의 계시에 이어 그간의 사정을 알리는 왕 부인의 편지를 본다. 이 부인이 처형당하는 날, 장풍운이 경성으로 돌아온다.

좌승상이 말을 달려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헤치고 형을 집행하는 감형관에게 가서 전후사연을 이르며 “참하는 시각을 늦추라.” 하고는, 바로 입궐하여 벌줄 것을 청했다. 천자가 크게 놀라셨지만 먼저 먼 길 갔다 온 것을 위로하시고, 다음으로 옥사를 말씀하셨다. 좌승상이 싸움에 나가 이겨 공을 세운 경위를 아뢰고는, 옥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금일 옥사는 저의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오니 스스로 맡아서 처리하게 해 주소서.”

천자가 이를 윤허하셨다. 좌승상이 본가로 돌아와 양 부인을 뵈 후, 형구를 차려 놓고 모든 시비를 죄주려 하니, 엄한 형벌 아래서 쥐 같은 무리들이 어찌 죄를 감출 수가 있으랴. 불하일장, 곧 한 대도 때리기 전에 이미 난향 등이 잘못을 날날이 순순히 자백했다. 좌승상이 표를 올려 옥사를 뒤집고, 유씨를 그 수레에서 사형에 처하고, 난향 등을 능지처참한 후, 이씨를 구호했다. 천자가 몹시 노하여 명현왕의 녹봉을 거두셨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 -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풍운’은 토번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 ② ‘천자’는 육사와 관련된 ‘장풍운’의 요청을 허락했다.
- ③ ‘난향’은 ‘운향’과 가까워지기 위해 재물을 이용했다.
- ④ ‘유씨’는 자신의 처소에 온 ‘운향’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 ⑤ ‘공철’은 ‘난향’의 외모를 보고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향’이 계교를 꾸미고 실행하는 공간이다.
- ② ‘천자’가 신분적 위계를 강조하는 공간이다.
- ③ ‘이 부인’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 ④ ‘공철’이 불의한 무리에게 이용당하는 공간이다.
- ⑤ ‘장풍운’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입증하는 공간이다.

7.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답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고전 소설에는 주인공의 득첩이나 제2 부인과의 혼인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혼인에는 자의에 의한 혼인과 마지못한 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득첩이나 제2 부인과의 혼인으로 갈등이 발생하는데, 주인공의 액운이 다하거나 상황이 저절로 변해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와 주인공이 주체가 되어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장풍운전」을 이러한 구조에 입각하여 살펴볼까요?

학생: 이 작품은 ㉠ ‘장풍운’의 두 아내인 ‘이 부인’과 ‘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소설입니다. ‘장풍운’은 ‘이 부인’을 생각하여 제2 부인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 ‘천자’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유씨’와 혼인하므로 ‘마지못한 혼인’이 갈등의 계기가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 ‘장풍운’이 급히 경성으로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하므로 ‘주체의 노력’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됩니다.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 ‘이 부인’이 누명을 벗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여 고난을 극복하므로 ‘이 부인’의 측면에서 보아도 ‘주체의 노력’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 이 작품은 ‘마지못한 혼인’에 의해 갈등이 시작되고 ‘주체의 노력’에 의해 갈등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라)에 해당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음성 나환자 수용소 '자유원'의 원생들은 원장 박성일의 비리를 폭로하고 처벌을 호소하지만, 오히려 박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희망원'의 부랑아들을 동원해 집단 폭행을 하는 등 앙갚음한다. 이후 우중신 노인은 뜻을 같이하는 자유원 사람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인간단지'라는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한다.

그날도 자유원에서 몇 사람이 더 와 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박성일 원장이 아주 노발대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배운망덕한 놈들이라면서

“제 놈들이 이곳을 빠져나간다고 해서 어디 가 발을 붙일 수 있나 보자. 미구에 오도 가도 못하고 거리에서 굶어죽을 것이 뻔한데…….”

이것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악담인 동시에, 한편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다.

결국—바로 그 이튿날 아침나절이었다. 면사무소 직원 두 사람과 파출소 순경 한 사람이 함께 그 괴상한 공간—‘인간단지’를 찾아왔다.

“이곳 반장이 누구요?”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친구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막사의 흠담을 쌓고 있는 한 패를 보고 물었다. 아무 데라도 애국반이라는 게 있는 듯이 말하는 걸 보아서 역시 면직원에 틀림 없었다.

“반장은 없소만 저 언덕 위로 가 보시오.”

일행은 두말 않고 그들이 가리키는 언덕 위—버덩 쪽으로 갔다.

① 거기서는 수십 명의 음성 나환자들이 패를 나누어 발을 일구고 있었다. 역시 같은 사람이 같은 소리를 했다.

“반장이란 건 없소만 무슨 일로 왔소?”

우중신 노인이 일동을 대표하듯 말했다.

찾아온 이유는 간단했다. ② 뻔한 것이었다. — 왜 허가도 말지 않고 함부로 여기 들어왔느냐, 그것도 그렇거니와 이 아래 부락들이 발각 뒤집혀져서 면이랑 파출소로 몰려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야단들이니, 빨리 본래 있던 자유원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우중신 노인은 잠깐 생각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효과 있는 대답을 가려내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암만해도 박성일 원장의 부추김을 받은 것 같은—말하자면 박 원장과 똑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노여움이 한결 더 했던 것이다.

“허가라니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우중신 노인은 결국 이렇게 되물었다.

“그야 관청의 허가지요.”

면서기의 대답도 통명스러워졌다.

“글쎄요. 관청하지만 관청도 하도 많으니 어느 관청인지? 면입니까, 파출소입니까, 아니면 군청? 도청? 어느 쪽입니까?”

“이 영감이 누구 보고 따지는 거요?”

면서기는 결국 화를 버럭 냈다.

“따지는 기 아니라, 몰라서 묻는 거 아니요.”

“좋게 타이려 때 알아서 하시오. 괜히…….”

파출소가 한 마디 거든다.

“글쎄요. 누가 덮어놓고 반대를 합니까. 순서를 아리키 달라는 거 아입니까. 면이면 면이다, 군이면 군이라고.”

③ 어찌자는 건지 세 사람의 방문객은 서로 얼굴만 잠깐 쳐다보았다.

“이 늙은 것도 법률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오만, 소위 헌법에 규정된 ‘거주의 자유’란 거 말입더. 집 없는 국민이 건축 허가가 필요치 않은 깊은 산중에 있는, 노는 나라 땅에 움집

[A] 을 짓거나 거기서 살 때도 허가를 꼭 받아야만 대는 건지 어

면지? 내 생각 같애서는 애기의 경우처럼 출생에는 허가가 필요치 않고, 낳은 후 신고만 하면 대듯이, 거주의 경우도 필요하다면 신고만 하면 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만 당신네들의 경우는 다르지 않소?”

역시 나이 든 면직원의 말이다.

“문당이니까? 그러나 여기 온 사람들은 모두 음성입니다. 나라에서 성한 사람과 아무 차별 대우도 하지 않는 그런 국민입니다.”

우중신 노인은 시종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상부의 명령도 그렇고, 또 부근 주민들이 어떤 것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경찰은 경찰다운 소리를 했다. 면서기들보다 솔직한 태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날은, 결국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타협도 없이 헤어졌다.

(중략)

2백여 명의 장정들이 백주에 꿩이며 삽, 몽둥이들을 들고 물이꾼처럼 몰려왔다. ④ 어느 얼굴을 보나 인간 백정이다!

5십 명 남짓한 음성 나환자들은 우선 손에 쥔 것 없이 그들의 천막 앞에 앉아 있었다.

부락민들은 천막을 죽 에워쌌다.

구장인지 똥지 얼굴이 넓적하고 입이 메기처럼 커다란 사람이 겁에 질려 있는 듯한 음성 환자들을 보고 명령을 하듯 했다.

“여러 말 할 것도 들을 것도 없으니 곧 이곳을 떠나시오!”

목소리도 입따라 우렁했다.

경기가투리가 일동을 대표해서 따지려 들었다. 그러나 그는 두 마디도 못하고 구장인 듯한 사내의 발길에 채어 넘어졌다.

환자들은 우쭐하러다 말고 천막 안을 돌아보았다.

흰 수염을 털털 털며 우중신 노인이 예의 긴 지팡이를 짚고 경기가투리가 섰던 자리에 나타났다.

“자네 말마따나 여러 말 할 것 없네. 우릴 쫓아라. 우선 나무터!”

우중신 노인은 누더기 같은 옷을 확 찢으며 뼈만 남은 가슴을 쑥 내밀었다.

⑤ 그러나 구장께나 해먹을 만한 사람 같이 보이는 메기아가리 에겐 그까짓 거리지들의 불평이나 위협 따위에 원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다.

“자네—? 이 자식이 머 이런 기 있노!”

메기아가리의 넓적한 손바닥이 우 노인의 얼굴을 물강스럽게 냅다 갈겼다.

쓰러질 듯하다가 일어나는 우 노인의 수염에 피가 별정계 흘러내렸다. 우 노인의 지팡이가 상대방의 아랫배 짬을 지르자, 미처 당기도 전에 또 한 부락민의 꿩이가 느닷없이 우 노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음향과 함께 쓰러진 우 노인의 눈은 금방 하얗게 뒤집혀졌다. 거의 순간적인 일이었다.

— 김정환, 「인간단지」—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 전개에 인과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새로 정착한 삶의 터전을 일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② ㉡: 방문객들의 방문 목적이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우 노인의 말에 대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④ ㉣: 음성 나환자들을 쫓아내려는 부락민들의 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 예상치 못한 우 노인의 위협에 놀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0. [A]의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문객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 ② 방문객들이 궁금해 하는 절차를 알려 주려는 것이다.
- ③ 방문객들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 ④ 방문객들과 맞서서 싸울 의향이 없음을 전하려는 것이다.
- ⑤ 방문객들이 자신들에게 적극 동조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정한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인간단지」에 드러나는 현실의 폭력성은 부당한 권력과 사회적 편견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폭력성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적인 생활권과 삶의 의지를 짓밟히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은 삶의 터전마저 잃게 된다. 이처럼 「인간단지」는 부당한 권력과 사회적 편견에 희생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보여준다.

- ① 박 원장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우 노인 일행은 기본적인 생활권을 위해 저항하지만 삶의 터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군.
- ③ 우 노인이 산속에 ‘인간단지’를 건설한 것은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군.
- ④ 부락민들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나환자들의 고통은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면사무소 직원이 ‘인간단지’ 사람들을 자원원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조선시대 시조 문학의 주된 향유 계층은 사대부들이었다. 그들은 '사(士)'로서 심성을 수양하고 '대부(大夫)'로서 관직에 나아가 정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세속적 현실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이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심성을 닦을 수 있는 자연을 동경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양면성에 기반을 두고 시조 문학은 크게 강호가류(江湖歌類)와 오륜가류(五倫歌類)의 두 가지 경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A] 강호가류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한 것으로, 시조 가운데 작품 수가 가장 많다. 강호가류가 크게 성행한 시기는 사회와 당쟁이 끊이질 않았던 16~17세기였다.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정치적 이상을 실천하기 어려웠던 사대부들은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회귀하였다. 이때 사대부들이 지향했던 자연은 세속적 이익과 동떨어진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공간이자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공간이었다. 그 속에서 사대부들은 강호가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이상적 조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심성을 닦는 수기(修己)에 힘썼다.

[B] 한편, 오륜가류는 백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인 오륜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권장하려는 목적으로 창작한 시조이다. 사대부들이 관직에 나아가면 남을 다스리는 치인(治人)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방편으로 오륜가류를 즐겨 지었던 것이다. 오륜가류는 쉬운 일상어를 활용하여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행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령이나 청유 등의 어조로 노래하였다. 이처럼 오륜가류는 유교적 덕목인 인륜을 실천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이 이상적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천하가 평화로운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처럼 사대부들의 시조는 심성 수양과 백성의 교화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타난다. 이는 사대부들이 재도지기(載道之器), 즉 문학을 도(道)를 실는 수단으로 보는 효용론적 문학관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때 도(道)란 수기의 도와 치인의 도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강호가류의 시조는 수기의 도를, 오륜가류의 시조는 치인의 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라
<제2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뎛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으라
<제4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입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으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 * 하얌: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릴: 부러워함.
- * 삼공: 삼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입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들.
- * 약뎛더라: 약았더라.

(다)

㉠ 넙금과 백성 사이 하늘과 땅이로되
나의 설운 일을 다 알려고 하시거든
우린들 살진 미나리를 혼자 었디 머그리
<제2수>

아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디나간 후(後)면 애답다 었디하리
㉡ 평생(平生)에 고터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제4수>

남으로 삼긴 중의 벗같이 유신(有信)하라
㉢ 나의 윈* 일을 다 날오려 하노매라
이 몸이 벗님이 아니면 사람 되미 쉬올가
<제10수>

㉣ 비록 못 니버도 남의 옷을 앓디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비디 마라
㉤ 한적곳* 때 시른* 후면 고터 씻기 어려우리
<제14수>

- 정철, 「훈민가(訓民歌)」 -

- * 윈: 그른. 잘못된.
- * 한적곳: 한 번이라도.
- * 때 시른: 때가 묻은.

12.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대부들은 강호가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 조화를 지향했다.
- ② 사대부들은 강호가류보다 오륜가류의 창작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 ③ 사대부들은 치인보다 수기를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시조를 창작했다.
- ④ 사대부들은 오륜가류와 달리 효용론적 문학관에 바탕을 두고 강호가류를 창작했다.
- ⑤ 사대부들은 사회와 당쟁으로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오륜가류를 창작했다.

13 [A]와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남 해남에는 고산 윤선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금쇄동은 윤선도가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은거했던 공간이다. 그는 혼탁한 정치 현실을 떠나 그곳에서 십여 년간 자연을 즐기며 생활하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았다. 「만흥(漫興)」은 이러한 윤선도의 삶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 ① ‘띠집’은 유배 생활을 끝내고 오랫동안 은거하며 지냈던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② ‘보리밭 꽃나물’은 자연 속에서 검소하면서도 청빈한 삶을 추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이군.
- ③ ‘부릴 줄이 있으랴’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군.
- ④ ‘비길 곳이 없어라’에는 당시의 정치 현실이 어느 때보다 혼탁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군.
- ⑤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에서는 자연에 머물면서도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14 [B]를 바탕으로 ㉠ ~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백성의 도리를 언급하기 위해 신분 차이를 밝히고 있다.
- ② ㉡: 백성들에게 효를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③ ㉢: 인륜을 실천하는 모습을 벗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
- ④ ㉣: 일상생활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이상적 상황을 제시하며 치인의 도를 드러내고 있다.

15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제1수>에는 ‘남들’과 ‘하암’을 대조하여 화자의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었군.
- ② (나)의 <제4수>에는 ‘소부 허유’와 관련된 고사를 활용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제시하였군.
- ③ (다)의 <제2수>에는 ‘혼자 엮디 머그리’라는 명령의 어조로 교화의 의도를 드러내었군.
- ④ (다)의 <제4수>에는 ‘디나간 후면’이라고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였군.
- ⑤ (다)의 <제14수>에는 ‘비록 ~ 마라’를 반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군.

빠른정답.

4	4	3	5	4
4	4	5	5	3
3	1	4	5	3

[1~3] (현대시)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이 작품은 가난과 고독 속에서 지친 삶을 살면서도 성찰을 통해 고단한 운명과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흰 바람벽’은 화자의 자기 응시의 공간이자 성찰의 공간을 의미한다.

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의 특성을 반영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흰 바람벽’, ‘어머니’, ‘글자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다’의 현재형 어미를 통해 화자가 상념에 젖어 있는 시적 상황이 부각된다. ③ 화자가 자신이 지나온 삶을 떠올리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독백적 어조가 된다. ⑤ 시의 마지막 부분 ‘초생달과 ~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다’라는 구문이 시에서와 같이 도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운명을 수용하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의식이 강조된다.

2. [출제의도] 시상 전개를 통한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A]에서 시적 대상은 어머니이고 [B]에서 시적 대상은 화자 자신이다. 시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상념, 어머니와 옛 여인에 대한 연상, 화자의 자기 성찰로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 [B] 모두 화자가 방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간 이동 양상은 없다. ② [A]의 ‘시퍼러듯 등하니 추운 날’에만 나타난다. ③ [A]에는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B]에서 는 이전과 달리 화자가 자신을 ‘뿔’은 존재로 인식하는 부분이 보인다. ⑤ [A]에서는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연상하는 화자의 그리움이 환기되는 것이므로 현실 비판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흰 바람벽’의 이미지가 다양한 층위를 보이는 것은 은 ‘흰’색과 ‘벽’이 지닌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화자의 현실과 내면세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좁다란 방’ 역시 화자가 처한 가난과 고독의 상황을 드러낸다. 따라서 ‘흰 바람벽’과 ‘좁다란 방’은 의미적 대립을 이룰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전등’이나 ‘셔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화자의 가난이 시각화되고 누추한 느낌이 심화된다. ⑤ 열거된 자연물과 인물들(시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게 살아가도록’ ‘하늘’이 부여한 존재들로 화자가 동질성을 느끼

는 대상들이다. 이들을 통해 가난하고 고독한 생활 속에서도 내면의 정결성을 잃지 않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 세계가 드러난다.

[4~7] (고전소설) 작자 미상, 「장풍운전」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주인공 ‘장풍운’은 전직 고관의 아들로 태어나 외적의 침입을 받고 가족과 헤어지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성장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전공을 세워 가족과 다시 상봉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작품의 후반부에는 가정에서의 처처 간 갈등이 전개된다.

4. [출제의도] 작품에 나오는 사건 내용을 파악한다.

‘공철’은 ‘난향’의 외모를 보고 자신의 아내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난향’의 음성이 아내인 ‘운향’과 비슷하여 착각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옥사가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므로 스스로 말아서 처리하게 해 달라는 장풍운의 요청을 천자가 윤허한다. ③ ‘난향’은 ‘유씨’의 계교를 실행하기 위해 금을 나누어 주며 ‘운향’과 사귄다. ④ ‘유씨’는 ‘운향’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 흔쾌히 정성껏 대접한다.

5.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는 ‘이 부인’과 ‘유씨’ 사이의 갈등이 나와 있지만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한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유씨가 매우 기뻐하며 물었다.’, ‘이 부인이 ~ 이 지경에 처하니 놀랍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나, 일이 되어 가는 형세가 어찌 된 것인지 알지 못하여 심신을 가다듬지 못했다.’ 등에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공철이 ~ 속은 바가 되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니, 어찌 비참하고 끔찍하지 아니하라.’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후에 ‘장풍운’이 경성에 급히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대목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6.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을 이해한다.

이 작품에서 ‘정당’은 ‘이 부인’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공철’은 ‘난향’에게 속아 이곳으로 들어가고 ‘이 부인’을 모해하려는 ‘유씨’의 계교에 빠져 ‘중문’에서 억울하게 희생된다.

[오답풀이] ① 계교를 꾸미고 실행하는 인물은 ‘운향’이 아니라 ‘난향’이다. ③ ‘이 부인’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유씨’의 계교에 빠져 누명을 쓰게 된다.

7.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를 파악한다.

‘이 부인’은 ‘유씨’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날을 기다리다 ‘장풍운’의 진상 규명으로 누명을 벗게 된다. ‘이 부인’이 기지를 발휘해 고난을 극복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왕 부인’의 편지를 받은 ‘장풍운’은 경성으로

급히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⑤ ‘장풍운’의 적극적인 의지로 음모를 꾸민 ‘유씨’는 사형을 당하고, ‘이 부인’의 정당성이 밝혀져 사건이 해결된다.

[8~11] (현대소설) 김정환, 「인간단지」

이 글은 부당한 억압으로 고통 받던 음성 나환자들의 투쟁과 비극적인 결말을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는 부당한 권력에 고통 받는 나약한 민중들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고발하고 있다. 음성 나환자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인 ‘인간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중신 노인을 비롯한 ‘자유원’ 사람들의 삶의 의지가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현실의 문제를 보다 강렬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8.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우중신 노인이 면사무소 직원이나 경찰과 나눈 대화, 우중신 노인이 ‘메기아가리’와 나눈 대화, ‘인간단지’ 사람들과 인근 부락민들과의 다툼 등을 통해 음성 나환자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현실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공간적 배경은 ‘인간단지’를 건설하려고 한 산속이다. 그러나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 ③ 제시된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④ 사건 전개에 입체성은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거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병치할 때 주로 생기는 효과이다. 제시된 부분은 사건이 시간 순으로 전개되며 동시 사건의 병치도 없다.

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그까짓 거러지들의 불평이나 위협 따위에 윈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통해 우 노인의 언행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메기아가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발화 의도 파악하기

우 노인은 헌법에 규정된 ‘거주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 그곳에 거주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요구가 부당함을 환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우 노인은 면사무소 직원과 경찰을 부정적인 인물인 박 원장과 똑 같은 부류로 보았으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 ② 방문객들이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우 노인은 방문객들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뿐 싸울 의향이 없음을 전하려는 것은 아니다.
- ⑤ 출생 신고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하고 있으나, 그것을 상대방이 자신에게 적극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1.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감상하기

우 노인이 산속에 ‘인간단지’를 건설하려고 시도한 것은 부당한 현실의 폭력에서 벗어나 음성 나환자들만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12~15] (고전시가) (가) 「시조(時調)의 내용상 특징」 (재구성) / (나)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정철, 「훈민가(訓民歌)」

(가)는 사대부들이 지닌 의식의 양면성(정치현실에 대한 이념과 자연 동경)과 재도지기의 문학관이 강호가류와 오륜가류라는 두 부류의 시조 창작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더불어 강호가류와 오륜가류의 주요 특성을 밝히고 있다.

(나)의 「만흥(漫興)」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전 6수의 연시조이다. 각 수에서는 속세와 자연을 대비하여 안분지족(제1수), 안빈낙도(제2수), 임천한흥(자연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 (제4수), 군은예찬(제6수)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다)의 「훈민가(訓民歌)」는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백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전 16수의 연시조이다. 백성들을 교화하려는 의도와 전달 효과를 고려해 평이한 시어와 명령형·청유형 어미 등을 활용했다. 제시된 작품에서는 군신유의(제2수), 효행실천(제4수), 봉우유신(제10수), 도적질과 동냥질 금지(제14수)라는 주제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1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사대부들이 강호가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 조화를 지향했다는 것은, (가)의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2문단 첫 번째 문장에 강호가류가 시조 가운데 작품 수가 가장 많다고 했으므로, 사대부들이 오륜가류 창작에 더욱 힘썼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에서 사대부들이 수기와 치인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며 시조를 창작했는가는 알 수 없다. 심성 수양(수기)과 백성 교화(치인)를 모두 추구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강호가류와 오륜가류 모두 효용론적 문학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오륜가류는 백성 교화를 위해 창작된 시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감상하기

제4수에는 속세를 버리고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비길 곳이 없어야’는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흥취를 비교할 데가 없고, 이 흥취가 가장 좋다는 의미이다. 정치 현실이 혼탁하다는 인식은 이 표현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띠집’을 금쇄동에서 은거했던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리밥’과 ‘꽃나물’은 소박한 음식이므로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보여 주는 소재라는 것은 적절하다.

- ③ 자연 속에서의 삶 외에 ‘여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보기>의 내용과 연결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본 것은 적절하다.
- ⑤ <보기>에서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 ㉔에는 치인의 도가 담겨 있지만, 이상적 상황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임금은 하늘이고 백성은 땅이라는 신분 차이를 드러낸 부분이다. 뒤에 이어지는 백성의 도리를 언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②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것뿐이라는 표현을 통해 효의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벗이 나의 그른 일을 다 이르러(충고하러) 한다는 내용이다. 직언하는 벗의 행위를 통해 봉우유신의 덕목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과 효과 이해하기

- ‘혼자 엷디 머그리’는 ‘혼자 어찌 먹겠는가’의 의미로 설의적 표현이다. 명령의 어조는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살진 미나리’는 중국 고전 「여씨춘추」에 살찐 미나리를 백성들이 임금에게 바치려 한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풍작을 임금의 은덕으로 보고 이에 보답하려는 백성의 뜻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교화의 의도가 담겨 있다.
- [오답풀이]** ① ‘남들’은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화자를 비웃는 속세 사람들을 의미하고 ‘하암’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② 속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서 은거했던 고사 속 인물들인 ‘소부 허유’를 활용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초장과 중장에 ‘비록 ~ 마라’를 반복하여 유교 윤리를 강조하므로 적절하다.